

혁신도시 하반기 채용 일정 또 미뤄지나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9.32 (+2.59)	↑ 금리 (국고채 3년) 0.835 (+0.010)
↑ 코스닥 841.35 (+5.04)	↑ 환율 (USD) 1186.80 (+1.70)

한전, 9월 말까지 공고 예정... 코로나19 상황 고려 변경될 수도 13개 기관 채용 예정 총 2281명... 지역인재 의무 비율 2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 일정이 또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반기 전형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되면서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올 하반기 총 820명을 정규직 채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해 채용 목표인 1600명의 절반 가량(48.8%)인 780명을 지난 상반기에 뽑았다. 대졸 공채를 통해서는 461명을 뽑고, 고졸과 6직급 등은 319명을 채용했다.

한전은 오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공채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한전은 이달 29일 예정돼 있던 3차 6직급 채용 필기시험을 한 달 뒤로 미뤘다. 지난 22일 예정됐던 '고졸 채용형 인턴' 필기 전형도 한 달 연기했다.

전력그룹사 한전KDN은 빨라야 9월 말

까지 하반기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KDN이 지난 상반기 진행한 채용전형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류전형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전KDN 신입사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던 전남의 한 숙박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연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전KDN은 지난 상반기 5직급 35명 등 150명 안팎의 인원을 공개 채용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9월 1일 공고를 내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농업 관련 이 전기관 가운데 하반기 첫 채용을 진행한다. 농어촌공사의 5급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총 180명으로, 행정(44명), 토목(87명), 지질(3명), 기전(39명), 전산(2명), 환경(5명) 분야로 나뉜다.

지역제한 전형은 전체 채용의 40%인 72명으로 예정돼 있다. 농어촌공사는 9월 중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필기시

험, 11월 말~12월 초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0월 초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채용인원은 40명 안팎으로 11~12월 필기·면접을 거쳐 연말 신입사원 배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올 하반기 6명을 새로 뽑는다. 지난 상반기에는 연구직 3명을 채용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하반기 채용 일부는 지역출신에 할당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22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채용일정은 2주 연기했다. 올 하반기 인터넷진흥원은 채용형 인턴과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을 포함해 총 40명을 뽑는다.

정부 권고안에 맞춰 이전지역 인재로 전체 채용의 24% 비중을 채운다는 계획으로, 지난 상반기 뽑은 11명 가운데 45%에 달하는 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총 16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 상반기 2명을 채용한 콘텐츠진흥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정규직 채용일정 변동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달 초 올해 신입직원 20명 채용을 마쳤다. 지원자 3922명,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채용에서는 경영·행정·사무·일반 직군 9명 가운데 30% 비중이 넘는 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한편 올 초 채용계획을 밝힌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281명이다. 지난해 혁신도시 17개 기관 채용계획 인원 1608.5명 가운데 24.6%에 달하는 395.5명이 지역출신 인재로 채워졌다. 올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향한 24%로 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태풍 현장점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오른쪽)는 지난 25일 제8호 태풍 바비 복상에 대비해 지역 시설하우스 농가 13곳을 방문해 현장점검했다. 농협은 기상특보 해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한전 광주전남본부 태풍 '바비' 비상대응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8호 태풍 바비의 복상에 대비해 광주·전남지역 38개 전 사업가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전 사업소에 청색비상을 발령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한전과 전문회사 직원 2200명(연 인원)은 태풍으로 인한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 복구에 나선다. 오가크레인, 활선작업차 등의 복구장비 400여대도 비상 투입될 예정이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가거도, 홍도, 흑산도 등 태풍 이동경로 포함 도시는 지난 24일부터 비상복구인력 68명과 장비 27대를 추가 전진 배치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앞서 변압기, 전주 등 전 사업소의 전력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쳤다.

임낙송 본부장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고객 전력설비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소에 복구장비와 기술인력을 지원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정몽규 HDC 회장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 놓고 마지막 담판

유동성 추가 공급 등 인수 부담 덜어줄 파격적 제안 주목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만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사안을 의제로 한시간가량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려고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이라 이 회장이 인수 부담을 덜어줄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구채 추가 인수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나 유동성 추가 공급 등이 산은이 준비한 '당근책'으로 거론된다.

HDC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

다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충분한 실사를 했던 만큼 재실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대립 속에 진행된 이 회장과 정 회장의 회동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을 경우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산은의 마지막 제안을 현산이 받아들여 극적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옥상



대구화물협회 부회장 김동석,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김재성,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김기승,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박종기, 서울화물협회 감사 김석수, 울산화물협회 감사 김명기, 경기화물협회 감사 고달원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최정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광식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신현준, 강원화물협회 이사장 권순산, 충북화물협회 이사장 권경현, 충남화물협회 이사장 최필운,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장희철,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희철,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고정철, 전남화물협회 이사장 김성일, 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최영수,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서준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눈으로 보고 선택 ... 광주은행 '보이는 ARS' 서비스

고객센터 등 50여 가지 모바일웹 업무 이용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50여 가지의 모바일웹 업무를 '보이는 ARS'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이는 ARS'를 이용할 수 있는 번호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와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 광주시 금고(1899-3888) 등이다.

광주은행 보이는 ARS는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고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 진행해야 했던 방식과 달리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청각 장애를 지닌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광주은행 측은 기대했다.

스마트폰에 '전화' 또는 '클릭'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RS 상담을 할 때 전용앱 설치 여부를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광주은행은 보이는 ARS 서비스에 50여 종의 모바일웹 banking 서비스를 연계했다.

정찬양 디지털금융본부장은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

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고객센터 채널의 디지털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 친화적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 디지털 금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역량 제고를 내세우며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채팅상담시스템'을 시행했고, 올해 6월에는 금융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기반 챗봇 상담시스템 '베어비'도 시행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년 만의 변신 ... 현대차, '더 뉴 코나' 외장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코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코나' (the New KONA)의 외장 티저 이미지를 26일 공개했다.

더 뉴 코나는 2017년 6월 나온 1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현대차의 대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새 모델에는 고성능차 브랜드 'N'의 디자인과 주행감성을 담은 'N라인' (Line)이 추가되며,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앞모습은 전보다 넓은 비율이 강조됐고, 불륨감을 강조한 후드와 슬림한 그릴 사이의 예리한 모서리는 상어의 코(Shark Nose)에서 영감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코나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더 뉴 코나'로 재탄생했다"며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



과 디자인을 갖춰 소형 SUV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